

# 하나님의 말씀

구원시대 - 시간과 공간 - 영원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6733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는 일.....	4
구원시대.....	6
8085 구원시대로 정해진 시간의 간격.....	6
5170 성장 시대와 그의 기간. 물질과 물질의 영향.....	7
3619 구원의 과정. 영원. 지옥과 저주.....	8
4040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 시대.....	9
7221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구원시대.....	11
6432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시대.....	12
2891 한 구원시대의 기간.....	13
7187 한 구원시대의 과정.....	14
8748 한 구원시대의 끝은 너희에게 확실한 것이다.....	15
5659 한 성장 기간의 시작과 끝 사이의 긴 기간.....	17
6479 천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다.....	18
5060 자유의지에 근거한 구원의 계획.....	20
시간과 공간.....	22
9016 사람들이 기간을 추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22
4011 인간이 종말의 때를 추측하여 정하는 일. 예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종말의 시기. 날들을 단축하는 일.....	23
8777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는 제한이 없다.....	24
6608 시간의 개념과 그에 대한 지식.....	26
7924 시간과 공간의 개념.....	27
8252 이 땅의 성장에 관한 시간의 개념.....	29
8997 시간과 공간의 법칙. 아직 온전 하지 못한 상태.....	30
6634 창조물이 없는 공간.....	32
2575 영원의 시간과 공간 법칙.....	33
7013 온전한 상태에서의 시간의 개념.....	34
7419 저세상의 거대한 공간.....	35
7474 시간과 공간의 개념.....	37
8779 시간과 공간의 개념. 지극한 행복.....	38
영원.....	41
8399 영원하신 하나님.....	41
0974a 불사. 영원. 자살.....	42

0974b 불사. 영원. 자살.....	43
1912 영원의 개념.....	44
7782 영원의 개념. 하나님의 구원계획.....	44
8108 영원들에 대한 이해.....	46
6019 영원의 개념. 온전함.....	47
영원한 저주.....	49
6550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저주.....	49
4602 영원한 저주.....	50
6155 영원한 저주는 없다.....	51
8947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	52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는 일.

B.D. No. 6733

1957년 1월 11일

**나**는 너희 모두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로써 너희의 생각이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한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빛을 주기 원한다. 이로써 어두움이 너희를 떠나게 한다. 나는 너희를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즉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단지 사랑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길에 서서 너희에게 내 선물을 전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를 지나친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의 영의 눈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없게 되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에게 손을 대고 그가 고난과 비참함을 겪게 한다. 이로써 그가 이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왜냐면 불행한 상태에 있고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자주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들이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뒤따르고 그들에게 힘과 빛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연약하고 비참하다고 느끼느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가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혼의 영적 위험과 빛과 힘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혼에게 비추는 올바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빛이 그의 혼에게 깨우침을 주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그는 또한 올바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지 못했다. 왜냐면 이웃들의 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자신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이 단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기 원하고 열린 심장으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이 나 자신으로부터 전적인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는 단지 내 말에 열린 심장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장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 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분산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향하고 이런 사랑이 항상 단지 자신의 피조물들의 축복되지 못한 상태를 행복하고 축복된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런 믿음이 너희 안에 생기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내 대적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내 지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로 너희 사람들이 나에게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영향력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너희에게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은 내 말씀의 형태로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또는 그가 조용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의 형태로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항상 또 다시 나타나 너희 심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비로 내가 영원히 영원한 기간동안 너희를 얻기 위해 싸워야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자원하여 심장과 귀를 나에게 열고 내 손에서 빛과 힘을 받기 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 사랑이 모든 영원히 영원까지 너희에게 향할 것이고 너희가 단지 축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시대로 정해진 시간의 간격.

B.D. No. 8085

1962년 1월 22일

**나**에게는 천 년은 하루와 같다. 너희가 언제 나에게 돌아오든지 너희가 얼마 동안 나로부터 떨어져 있던지 나에게서는 진실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너희가 언젠가 나에게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 하나가 되는 데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해 축복되지 못한 시간을 줄여 주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 지혜 가운데 너희를 위한 고난을 통해 오는 축복을 바라본다. 왜냐면 고난이 너희의 나에게 귀환을 빠르게 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고난이 너희를 너희의 생각과 의지가 바뀔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의지에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 너희의 대적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할 것이다.

비록 시간이 나에게서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위해 예정된 내 구원계획에 시간 간격을 정했다. 다시 말해 내 구원계획은 시간적으로 정해졌다. 이 계획은 내 사랑과 지혜에 합당하게 지켜 질 것이다. 이 기간은 타락한 영의 세계 편에서 항상 새로운 저항을 하거나 어느 정도 새롭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구속 기간이며 또는 저항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전혀 지키지 않아 성장이 막히게 되는 법적인 질서가 종종 다시 세워져야만 하게 지혜롭게 예정되고 제한이 된 구속의 기간이며 항상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간격이 구속 시대이다. 나는 시간 간격을 것을 변경하지 않고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영적인 성장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때에 피할 수 없이 확실하게 일어날 구 시대가 끝나는 것은 새로운 성장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은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게 남게 되는 것은 내 영원한 구원계획 때문이다. 왜냐면 서로 다른 기간들이 들어 있는 이 시대의 시작과 끝이 아주 긴 시간간격이 있어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지식이 없고 단지 영이 깨어난 사람들만이 이런 지식을 믿을만한 것으로 영접하기 때문이다. 나에게서는 천 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시간을 측량할 수 없이 길게 느낀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도달할 수 있는 형체로부터 구속되는 일을 단지 진지하게 추구하면, 너희는 이 기간을 스스로 짧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에게 진실로 모든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 주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강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너희에게 단지 아주 짧은 시간 만이 필요하다.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한 구원시대가 끝나면,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끝이 없는 것처럼 다시 길어지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 운명은 너희에게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로 하여금 항상 다시 너희를 위해 아직 나에게 저항하는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를 위해 너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항상 또 다시 만들어 주게 만든다.

왜냐면 나는 내가 언젠가 내 목표에 도달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는 시간 개념이 없다. 모든 것이 과거와 미래도 나에게서는 현재이다. 너희의 생각에 아직 제한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한때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나에게 저항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연합은 거절할 수 없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 가운데 모든 이전의 고통을 사라지게 되고 너희는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너희를 뒤쫓아 깊고도 깊은 곳까지 갔던,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았던 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성장 시대와 그의 기간. 물질과 물질의 영향.

B.D. No. 5170

1951년 7월 14일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의 계획은 항상 각각의 영적인 존재의 상태에 따라 특정한 기간으로 나뉘져 실행이 된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구원 기간이 서로 다르다. 시간적으로 다르고 조건면에서 다르고 성장할 가능성 면에서 다르다. 긴 구원 단계와 짧은 구원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아주 다른 창조물들이 존재한다. 이런 창조물들은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크거나 적게 굳은 묶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구원 단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혼이 성장하게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인 성장 과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성장 단계를 깨달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조물들이 항상 사람들의 성숙한 상태와 그들의 의지에 합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저항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적 형체가 더 쉽게 해체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이 성장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이 이 땅의 창조물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진 후에 창조물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새로운 형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에 항상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사는 가운데 아직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훨씬 더 열심히 위를 향해 추구한다.

그러나 그런 완전한 해체가 일어난 후에 이 땅의 인류는 훨씬 더 평화롭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이 되어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유익하게 영향을 주고 또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굳은 물질 안에 아직 깊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거하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이번 구원의 기간이 다시 끝나갈지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항상 원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 가운데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빠르게 그의 저항을 포기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나온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지속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나오고, 이런 존재들은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원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존재들의 영향을 오래동안 받을수록, 성장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굳은 물질 안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 끝없이 긴 변화를 거쳐 다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되면, 이런 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이고, 이런 존재들이 이제 그들이 거하는 창조물의 종말이나 해체되는 시간을 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향한 존재는 또한 오래동안 존재하는 일을 보장받는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다시 저항하는 일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존재가 최종적으로 다시 파괴되고, 이 땅이 해체되어 새로운 영적인 형체가 형성되게 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율법에 따라 모든 존재가 위로 성장해야만 하고, 실패한 존재는 아주 깊이 타락해, 존재가 다시 위로 성장과정에 통합되어, 타락한 존재가 한때 거했던 높은 곳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영원한 율법이 성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의 과정. 영원. 지옥과 저주.

B.D. No. 3619

1945년 12월 4일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과정은 영적인 존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한 동안에는 지속이 된다. 그러므로 같은 긴 기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존재가 스스로 저항하는 정도와 구원받으려는 의지를 통해 이 기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구원 과정이 끝나기 전에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흐를 수 있고, 여러 차례의 구원시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한 구원시대로 충분할 수 있고, 이런 일은 영적인 존재가 스스로 자원하여 의식적으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원받기 위해 추구하면, 가능하다.

영적인 존재가 한 구원시대 안에서 일찍이 또는 늦게 마지막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일에서도 묶임을 받은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비록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그의 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는 특정한 활동을 수행해야만 하고,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서 싸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특정한 활동을 자원하여 행할 수 있고, 스스로 묶임을 풀기 위해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묶임을 받은 가운데 이뤄지는 그의 성장 과정에 오랜 기간이 걸릴 필요가 없고, 그는 자유의지로 마지막 단계에 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이제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사랑과 자유의지로 섬길 준비가 되었는지 또는 하나님께 저항함으로 다시 퇴보할지를 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전의 단계에서 빠르게 성장한 존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구원 과정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저세상에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장과정을 지속해 나가야만 하고, 그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 세상에서 다시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그가 또한 더 깊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의지가 묶인 가운데 창조물들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존재에게 두 번째 구원시대가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또한 여러 차례의 구원시대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강한 저항을 지속하는 영적인 존재는 그의 구원을 위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존재는 굳은 물질 안에 갇혀 있고, 의무의 단계에서 그의 성장을 위해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이미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도 언젠가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다시 정체하거나 퇴보할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남김 없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원시대가 많이 흘러갈수록,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항상 적어진다. 이런 일을 이 전의 끝없이 긴 포로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이런 일은 인류가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이 전의 그들의 끝없이 긴 기간 동안의 저항에 대한 댓가로 강력한 싸움을 견뎌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편에서 주는 아주 강한 힘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사랑으로 영적인 존재들을 목표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돕는다. 그러나 실패한 영적인 존재는, 저세상에서 성장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피할 수 없게 성장과정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저세상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 정도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재가 오히려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이로써 깊게 타락하여, 단지 가장 굳은 물질 안으로 묶임을 받는 일이, 의무의 상태에서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가는 일이, 존재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로 인해 생긴 완전한 무기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를 목표로 이끌기 위해 여러 번의 구원시대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에 따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의 시간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반복적인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성장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장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항상 그리고 특히 종말의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공활히 여기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위해 부여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어나는 일의 근거가 되고, 단지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라 새로운 성장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 시대.

B.D. No. 4040

1947년 5월 15일

**시** 판의 날은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구원시대의 끝이다. 이번 구원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빛의 아들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의 성장은 멈췄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빛을,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었고, 이 땅은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되었고,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영의 세계에서 큰 어두움을 가져온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9/53

원인이었던 자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도움이 절실이 필요했고, 이런 도움은 단지 하늘에서 오는 빛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증거로써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빛의 존재가 이 땅의 과정을 가야만 했다.

예수의 혼은 빛의 존재였고, 그의 몸은 인간의 본성을 특징짓고, 그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대항해 싸워야만 하는 모든 연약함과 충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혼은 실제 자신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추구했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혼에게 모든 옛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같은 과정을 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구속사역은 인정받을 수 없고,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사가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씨름하고 투쟁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똑같은 어두움과의 싸움을 견뎌야만 했다. 그는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진지하게 노력하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왜냐면 그의 혼이 하나님을, 그의 진정한 고향을 갈망했지만, 그의 육신은 세상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모든 성장은 자유의지의 역사였다. 모든 성숙한 정도의 증가는 세상을 극복한 결과였고, 자기 자신과 모든 세상 욕망에 대한 싸움의 보상이었고, 이 땅의 기쁨과 쾌락을 포기한 일에 대한 보상이었다.

인간 예수는 이런 의지를 가졌고, 그는 자신을 자유롭게 했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완전히 연합이 되었고, 그는 동시에 죽음의 사슬에서 모든 인류를 구속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에게 바친 희생제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구원시대는 인류와 아직 물질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직 먼 성장의 길을 가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수월해지는 일을 느끼고, 형체로부터의 최종 구속을 목적으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인간으로 육신을 입으려고 했다.


그러나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는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단지 아주 적게 주의를 기울이고, 활용해야만 하고,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한다. 인류는 이번 시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와 죄짐 가운데 머문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위해 그에게 부여된 구원시대가 끝나고, 이 날은 영원으로부터 정해졌다. 왜냐면 이 날에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세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날에 그들은 그들의 공로에 따라 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된다.

너희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이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큰 의미를 깨닫고,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아주 짧은 시간을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그가 보냄 받은 것을 믿고, 그를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면, 그는 너희가 그에게 구속되기 원하면, 그가 너희를 마지막 때에 구원할 것이다. 그를 믿고 그에게 힘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단지 그와 그의 은혜에 너희를 맡긴다면, 마지막 날은 너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구원시대.

B.D. No. 7221

1958년 12월 5일

 든 시대를 위해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 이 땅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구세주를 맞이했다. 이로써 이 땅의 이번 구원시대를 통해 전적으로 구속받은 혼이 이 땅의 세상을 떠나 다시 빛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임했다.

그러나 이 전에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아직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막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했다. 예수가 이 땅에 거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들이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영원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었다. 이전에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과정을 갔다. 그러나 예수가 자신의 죽음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구속사역을 인정하게 자신의 희생을 전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유의지로 단지 고백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들도 구속사역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속사역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주님 자신이 이 땅의 과정을 이번 구원시대에 갔기 때문에 이번 구원시대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된 모든 혼들에게 육신을 입게 된 일이 아주 큰 은혜의 역사이다. 예수의 이 땅의 과정과 그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그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아는 지식이 계속되는 훗날의 구원시대에 실제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육신을 입을 수 있었던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이런 큰 구속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지식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런 구속사역을 알려줄 것이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절대로 사라질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시대를 통해 유지되고 항상 또 다시 계속되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던 이 구원시대 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나 이 구원시대의 끝에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해졌다.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게 되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영의 역사가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믿음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편에서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사라지지 않게 돌보아 모든 사람 자신이 이 지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고 자신이 정한 입장에 합당하게 책

임을 저야만 한다. 단지 지식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단지 사랑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자세가 비로소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인간 예수의 이 땅의 과정을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 예수의 이 땅의 과정을 부인할 수 없는 동안에는 그는 단지 사랑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자주 기억할 수 있다.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항상 확실한 증거를 적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반대의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 구원시대가 주님이신 하나님의 구세주를 맞이했고 이 구원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 거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쉽게 믿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의 문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증거를 통해 강요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손을 펼친다. 모든 사람이 접촉을 받고 그에게 다가가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다. 다음 구원시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큰 하나님의 구세주의 공훈과 사랑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그를 믿어야만 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시대.

B.D. No. 6432

1955년 12월 23일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오래 걸리지 않아 한 구원시대가 끝나게 된다. 구원시대에 구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전사의 무리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간 것처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이번 이 땅의 구원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은혜의 빛이 임했다. 왜냐면 이 땅의 현재의 시대에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빛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한때 자발적으로 영원한 빛을 떠났고 이로써 깊은 어두움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두움이 그들의 운명으로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구원의 시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이미 끝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절망적인 상태가 끝났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원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는 단계에 들어간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남김 없는 구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전례 없는 은혜의 공급을 활용하지 않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그들의 목표에 다시 달성한다. 그들의 목표는 빛의 나라에서 영접을 받기 위해 그들의 혼을 성숙하게 하고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삶을 마치는 일이다.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고 이런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을 떠

난다. 비록 모든 사람이 예수의 구속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사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또한 이 땅에서 완성한 이런 위대한 공훈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구원시대가 끝이 난다. 이번 구원시대가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새로운 구원시대가 다시 시작 된다. 이로써 모든 존재에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왜냐면 완전한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이 전환점 앞에 서있다. 너희는 이전 구원시대의 끝과 새로운 구원시대의 시작점 사이에 있다. 이는 이 땅에 종말이 임하고 새로운 땅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시간이 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에 관한 지식을 아직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해 그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한 사람이 그에게 왜 그가 자신의 계획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 입증하기를 원했는지를 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그는 대답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단지 자신과 연결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유일한 이성적인 지식은 그에게 크게 유용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순전히 이성적인 분별을 시작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분별은 크거나 적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

현재의 구원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을 받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가 자주 위로 향하지 않았다. 단지 작은 수의 무리가 항상 그를 따랐고 이번 구원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그다지 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가까운 종말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구세주를 따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의 작은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종말은 돌이킬 수 없게 다가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서둘러야 하고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 모두가 종말이 오기 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는 일을 긴급하게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무 늦기 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긴급하게 너희에게 권면한다.

아멘

한 구원시대의 기간.

B.D. No. 2891

1943년 9월 22일

**한** 구원 시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형체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의 저항에 달려 있다.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이제 모든 형체 안에서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이 특별하게 어렵게 제시된다면, 구원 시대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더 어려울수록, 영적인 존재는 각각의 걸형체를 더 빠르게 극복한다. 그러면 인간으로 마지막 육신을 입는 일을 포함하여, 이 땅으로 육신을 입는 모든 길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고, 이로써 존재는 마지막 단계에서 성숙하게 되고, 빛의 존재로써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일이 다시 실패할 수 있다. 왜냐면 최종적인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마지막 이 땅의 삶의 시험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의 이 땅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 의지가 실패할 수 있다. 즉 그런 존재의 성장은 영원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자유의지로 실패하는 일은 새롭게 묶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존재가 여러차례 실패한다면, 조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 땅의 기간은 항상 존재가 굴복하지 않는 정도에 달려 있고, 얼마나 자주 굳은 형체로부터 인간의 단계에까지 갔었는 지에 달려 있다.

존재가 자주 실패하는 일은 그의 의지가 실패한 것이다. 그의 의지가 모든 이 땅의 경로에 대해 그에게 풍부하게 제공되는 은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절대로 자신이 힘을 드릴 수 없었다고, 절대로 변명할 수 없을 것이고, 항상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영적인 존재가 해방되기를 추구한다면, 그의 의지가 이 힘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키는 각각의 성장 기간이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각각의 구원시대의 초기에는 항상 또 다시 낙원의 상태가 될 것이고,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선과 악의 구별이 일어날 것이고, 악한 자는 새 땅의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묶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묶임이 영적인 존재가 최종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런 기간이 점점 더 짧아 져야 한다. 왜냐면 각각의 새로운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에게 더욱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즉 더 빠르게 인간으로 육신을 입게 하는, 더 어려운 조건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이 전에 가졌던 저항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저항을 꺾기 위해 더 날카로운 수단을 사용한다. 이런 구원의 시대는 짧은 시간 내에 끝이 난다. 이는 새로운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새로운 창조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마침내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아멘

한 구원시대의 과정.

B.D. No. 7187

1958년 10월 13일

**너**희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한 구원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구원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를 알려주는 모든 지식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단지 희귀하게 이에 관해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희귀하게 사람들이 그의 삶을 여기에 맞추어 산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이 땅의 시대의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함을 너희 모두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너희가 이 상태를 만드는 일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할 분 앞에서 너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과정을 가는 은혜는 비록 한편으로는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너희의 유혹자요, 원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환에 이 땅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과정은 너희를 창조한 분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제공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과장이 너희에게 하나님께 귀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 수 있다. 두 가지가 너희에게 자유하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한때 자신을 떠나 타락한 존재들이 대적자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돕기 위해 너희에게 특정한 시간을 주었다.

이제 한 구원시대가 곧 끝난다. 종말 전에 너희에게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너희가 이미 이 땅에서 끝 없이 긴 성장기간을 통해 벗어났던 끔찍한 운명에 다시 빠지고 같은 상태에 다시 도달해 새롭게 이 땅의 과정을 가기 위해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각각의 혼들의 운명을 안다. 하나님은 모든 혼들의 성장 정도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안다. 혼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의지의 변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이제 아직 종말의 때까지 이 가능성을 활용한다.

이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그들이 앞두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일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경고하고 권면한다. 그는 아직 열린 심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일을 알려주고 가까이에 있는 종말을 알려 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그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그들에게 전해준 것을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영접하는 일은 증거를 통해나 또는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믿게 강요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줄 수 있고 곧 그들에게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고 그들이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는지 심장 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종말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한 구원시대의 끝은 너희에게 확실한 것이다

B.D. No. 8748

1964년 2월 9일

**너**희의 완성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 졌다. 이는 영원한 내 구원계획 아래 각각의 성장의 기간들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나 자신이 만약에 때가 되었다면, 이런 성장 기간을 종료시킴을 의미한다.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역사는 내 지혜가 영원 전부터 좋고 성공적으로 깨달은 바대로 정해진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를 않는다. 왜냐면 가장 깊은 지혜와 끝없는 사랑이 모든 일어나는 일을 정했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게 생각한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한 제한이 없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성장기간의 시작과 끝 사이는 너무 긴 시간이어서 사람들은 시작점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말을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영접해야 하는 믿음의 문제로 남게 된다.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통해 그의 의지를 바꾸게 강요받아서 안 된다. 그러므로 가장 깊은 창조비밀은 가리워져서 남아야만 하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한 구원의 시대가 종료되는 한 시점에 도달한다. 지속적으로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에 관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항상 또 다시 불러 세우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런 종말의 관한 지식을 사람들은 전달받을 수 있게 한다. 한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거의 믿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이로써 만약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내 의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예언이 그들에게는 믿을 만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영접하게 강요받아서 안 된다. 그러나 비록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성장 기간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성취가 된다. 이로써 사람들은 이런 새로워지는 것을 즉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옛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새로운 성장시대가 시작 된다는 것을 예상해야만 한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이에 관해 생각해본다.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은 내 구원계획을 가까이 접하게 될 것이고 나로부터 설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한 시대가 끝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나를 향한 의지를 통해 모든 연관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나에게 귀환을 위해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해진 시간이 주어 졌다. 이런 귀환의 과정은 끝 없이 긴 시간이다. 너희는 인간으로 존재하기 전에 이미 다른 창조물로서 이 땅을 체험했다.

그렇지라도 인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너희는 삶을 의식하게 되었다. 너희는 인간으로써 처음으로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전에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인간이 되기 전에 보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적으로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왔던 당시의 성품으로 다시 되는데 충분하다. 그렇지라도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는 너희 스스로의 잘못이다. 너희는 스스로 결과를 짊어 져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지치지 않는 인내와 아주 큰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게 나는 너희를 도왔기 때문이다.

아주 적은 시간 동안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놔두어서 너희가 전적인 자유 가운데 내 자녀로서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나를 향한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너희가 스스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했다. 나는 이런 자유를 너희에게 줘야만 했다. 왜냐면 피조물에서 자녀가 되는데 이 자유가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왜냐면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동행했고 너희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제공 된 시간은 끝나게 되었다. 법은 성취돼야만 한다. 너희 인간들이 이를 아직 믿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확실하게 이 구원시대의 끝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시대 종로의 전체적인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영이 깨어나서 모든 연관 관계를 이해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휴거를 시킬, 이 땅에서 나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을 영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전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먼 가운데 잘못 된 삶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미 생명이 없는 피조물이 된 것이다.

내가 이 땅과 이 땅의 거주 자들을 위해 미리 정해진 시간은 끝나게 되었다.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한때 타락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내 큰 창조를 통해 귀환시키는 영원한 구원계획이 지속되기 위해 타락한 자들의 일부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성장시대 끝에는 항상 측량할 수 없는 고난과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경고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단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락함과 성장만을 보고 세상에 재물만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단지 가장 큰 불행을 주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재물과 재산을 빼앗아 가는 자연재해를 통해 놀라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런 불행들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러한 불행들은 세상적인 안전감 가운데 안락하게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끔찍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분명하게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 그들이 단지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권세를 증명해주는 이런 자연재해만이 그들 자신을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아멘

한 성장 기간의 시작과 끝 사이의 긴 기간.

B.D. No. 5659

1953년 4월 24일

**이** 땅의 한 성장 기간의 끝과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과정이 큰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기간의 시작을 증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기간의 끝에 일어나는 파괴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믿어야만 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전의 기간의 종말은 사람들에게 실제 알려져 있지만 단지 전승된 지식으로 이를 의심할 수 있다.

태초의 사람들은 아직 종말의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런 지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후손에게도 보존이 되었다. 그러나 성장 기간이 끝나갈수록 이런 지식이 희미해지게 될 것이고, 아직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확정된 사실로 간주되지 않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전설로만 간주된다.

믿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모든 징조를 진리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종말이 다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에게 더 높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의 종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늘날 더 이상 죄의 홍수를 거의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홍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 없고, 그

때가 너무 멀리 있어 말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의미 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홍수로 구원의 한 단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와 같아야 한다. 완전한 자유의지로 일어나야 하는 높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 사람에게 그의 생각과 의지를 나타나게 하는 모든 강요는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포된 내용을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귀를 돌리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증거로 인해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 하도록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성장 단계는 인간편에서 볼 때 끝없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이런 일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다. 따라서 종말의 때에 그들의 관점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그들이 종말을 믿을 수 있지만 또한 의심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위할지 또는 반대할지 전혀 강요받지 않고 최종적인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이 가까운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일을 잊지 않을 것이고, 종말이 임하는 이유도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의지는 항상 자유롭고 또한 하나님의 예언도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영접할 수 있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행동할 의지가 없다면, 거절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지가 유일하게 선명함을 주고,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한 계시를 영접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또한 이전 시대와 이전 시대의 종말을 믿고, 종말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과 기록을 통해 선포한대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천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다.

B.D. No. 6479

1956년 2월 18일

 든 창조물과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하는 모든 물질 세계가 해체가 되고 모든 물질이 영화가 되고 모든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다시 온전해질 때까지 아직 영원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천년은 하루와 같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그에게 모든 시간은 순간과 같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온전해질 때까지 끝 없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온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변화를 위한 시간이 그에게 순간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을 수 있다.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큰 과제를 완수하는 일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땅의 창조물의 종말을 호언장담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다. 즉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반복해서 수리되어야만 하고 이런 수리되는 일이 항상 특정 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일을 비록 성장 과정이 아직 전혀

완료되지 않았고 너희가 세상의 종말을 이 땅의 물질적인 창조물들이 존재하기를 완전한 중단하는 일로 이해한다면, 너희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

무한히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직 자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중에 아직 아주 작은 일부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대부분의 영적인 존재들은 아직 심판을 받고 있다. 즉 그들이 모든 종류의 창조물 안에 묶여 있다. 이런 묶여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아직 인간의 단계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도록 허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성장 기간이 정체가 되면, 이 땅이 항상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항상 새로운 이 땅의 출현을 의미하고 이 땅의 표면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일을 의미하고 이 땅의 과정에서 성숙하게 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선포해야만 한다. 그들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종말을 믿기를 원하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믿지 못하는 근거를 너희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미가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에게 종말이 임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하고 비록 이 땅이 언젠가 전적으로 영화되기까지 아직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람들이 희생되는 변화를 이 땅의 별이 겪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인류는 종말을 앞두고 있다. 왜냐면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가 질서에 합당한 성장을 위해 해체되는 일과 창조물들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런 역사가 항상 특정한 기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은 단지 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를 거의 믿지 않게 될 것이고 종말이 더 많이 가까워 질수록 더욱 적은 수의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는 일이 정체되었다는 증거이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이 도달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 땅은 영원히 아주 깊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한 훈련장소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영적인 존재를 성숙시키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새롭게 수리되어야만 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인류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구원시대 끝 무렵에 그들의 완성에 가까이 도달한 사람들을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보장을 받고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영의 존재로써 영원한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을 받는다.

아멘

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 인간의 의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맞춘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진행이 된다. 왜냐면 내가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의지가 가장 유리한 영향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원시대의 끝에 가서 어떤 상태가 될 지를 안다.

나는 절대로 결정해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자유한 의지가 이 땅의 모든 사건을 일으킨다.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일이 맘대로 전개되지 않고, 모든 일어나는 일은 존재가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대로 가능한대로 가장 높은 성장을 하도록, 의지의 변화를 이루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는 내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땅의 삶에서 수많은 혼들이 실패할 것을 아는 내 지식조차도 각각의 구원 기간의 계획된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왜냐면 혼이 실패하고 언젠가 다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사용해야만 할지라도, 혼들이 특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게 만든다. 그런 가능성은 내가 실제 영원으로부터 아주 잘 깨닫고, 그러므로 각 개인의 혼의 성장과정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성공 여부에 관계 없이 목적에 합당하게 계획되어 있다. 왜냐면 비록 내가 성공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내가 알게 될지라도, 내가 성공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은 나에게 한 순간과 같고, 구원 기간에 성취되지 않은 일은 항상 반복되는 구원 기간에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계획에 따라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자유의지를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 사랑과 지혜가 절대로 물러나거나 숨을 수 없고, 내 사랑과 지혜는 항상 또 다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영원한 구원 계획은 단지 혼의 구원과 혼이 나에게 귀환을 추구한다. 내가 언제 목표에 도달할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없이 긴 기간 동안 불행한 상태에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고난의 기간은 너희 혼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끝이 난다. 이 순간은 영원으로부터 나의 계획에 따른 순간이고, 너희의 의지가 나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기를 원한다.

구원의 과정은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정한다. 내가 또한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안다면, 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이를 정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번 내 지혜가 옳다고 인정한 것을 내 사랑의 힘이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비록 영원한 시간이 지날지라도, 한번 내 지혜가 옳다고 인정한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목표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존재가 나와 연합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 어떤 것도 내 사랑에 영원히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시간과 공간

사람들이 시간을 추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B.D. No. 9016

1965년 7월 16일

**나**는 항상 너희가 나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는 법을 알 것이다. 너희는 모든 필요와 걱정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가 신뢰하는 가운데 이를 나에게 말하면, 내가 항상 너희의 필요와 걱정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돌보기 때문이고 내가 또한 무엇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은 끝없이 오랜 시간이다. 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얻는 시간의 추정은 각각의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조상들의 책에서 볼 수 있는 정도 까지 올바르지만 그러나 인류는 이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 거주해 왔기 때문이고 항상 단지 사람들의 성장과 관련된 사건들이 그들에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정하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절대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 땅에 이미 많은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창조물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머물렀다는 것은 확실하고 사람이 또한 처음부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하게 된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에 관한 동일한 질문으로 힘들어 했다는 일은 확실하다.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미 선사시대 피조물들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런 피조물들을 자신의 종족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피조물이 자신의 종족과 상당히 달랐고 최초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깨달았고 그들의 존재와 함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이 생각을 교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창조된 모든 인간은 이웃과 생각을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런 사전 존재한 존재들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들 자신이 육신을 입도록 허용받기 전에 거쳐야만 했던 이전의 모든 창조물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 이전의 사람들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았던 적이 없다. 왜냐면 인간이 이 땅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존하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왜냐면 그런 일은 완전한 인간이 창조물들의 면류관이 되야 할 때에 어떤 결함을 가진 존재를 생성되게 하지 않는 영원한 내 계획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전의 모든 창조물들을 의식하지 못했고 이 땅의 창조물들을 거치는 자신의 긴 여정을 몰랐고 그러므로 그는 한 혼을 받아드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어야만 했다. 왜냐면 사람이 이

제 나와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 땅의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실패로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전에 거쳤던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도록 허용된 모든 혼은 그런 육신을 입도록 허용을 받는 성숙한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이 이 땅에 머문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는 또한 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 이전의 인류가 살았던 기간을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 이전의 인간들이 살았다는 일은 확실하다. 인간 이전의 인간들이 고대 이전 모든 곳에 존재했고 마찬가지로 창조물로서 셀 수 없이 많은 혼의 입자들을 성숙시키는 일에 기여했고 그런 후 입자들이 다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했다는 일은 확실하다.

너희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의 관점에서 이런 일을 확정할 수 없고 너희에게 확정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단지 한 시점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런 추정이 정확한지 여부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사람의 삶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창조물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했고 또한 너희가 언젠가 빛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를 위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이라는 개념도 또한 나에게서는 눈을 깜박할 순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이 종말의 때를 추측하여 정하는 일. 예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종말의 시기. 날들을 단축하는 일.

B.D. No. 4011  
1947년 3월 31일

**인**간이 이성적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종말의 시기는 맞지 않다.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종말을 선포하면, 이는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종말의 때를 오래 시간 후로 미룰 수 있고, 이런 일은 오류에 빠지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혼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종말이 곧 임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진지하게 혼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하는 일이 종말을 예고해주는 목적이고, 사람들이 단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가까운 종말을 고려한다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말에 대해 가르치고, 그러나 종말의 시간에 대해 사람들에게 항상 불확실하게 남겨 둔다. 심지어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종들도 정확한 시점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종들이 믿음 안에 더 굳게 서있을 수록, 더 많이 사랑 안에서 살고, 또한 그들 자신이 종말의 때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의 징조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고한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도 마지막 날과 시간을 알지 못했고, 그의 예언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의 제자들도 또한 가까운 종말과 연관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했다. 그의 제자들도 또한 영이 깨어났지만,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인

간편에서 종말의 때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단지 시대의 징조를 고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피할 수 없게 임해야만 하는 종말이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 심판의 날과 심판의 날을 말하는 모든 예언들의 성취를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은 또한 종말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난의 때를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될 것에 대해 익숙해져야만 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 종말 전에 수고와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택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날을 줄이길 원한다는 큰 위로가 되는 보장을 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종말의 때가 오고 마지막 심판이 매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무리에 속하는 동안에는, 그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그는 또한 종말의 징조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임박한 종말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었는 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록을 통해 말한대로 종말이 가까이에 있음을 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는 제한이 없다.

B.D. No. 8777

1964년 3월 12일

**여**러 구원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여러 구원시대가 지나갈 것이다. 우주 가운데 항상 또 다시 창조물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끝 없이 수많은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아직 구속되길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입자 상태에서 물질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 로까지 성장하여 자신의 발전 과정을 마치게 될 수 있게 될 때까지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패해 자신을 최종적으로 영화 시키기까지 또 다시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주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인 내가 무한한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지에 대해 그리고 내가 왜 영들을 창조 했고 그들이 나를 대적해 일어나서 동시에 나에게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모든 영들의 생각을 다시 나에게 향하게 하려고 하는지 너희는 질문할 것이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근본적으로는 모든 타락한 영들로 구성 된 수많은 창조물들을 창조하게 만들었는지 질문할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끝 없이 깊은 사랑이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존재들의 귀환을 위해 창조 했다고 답변을 해줘야만 할 것이다. 내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지혜가 한 계획을 만들었고 이 계획을 통해 내 목표에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다.



내 제한이 없는 권세가 단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나에게  
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고 이런 의식이 나에게서 복된 것이었고 나는 이런 복을 다른 존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이 존재들은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만  
했다. 무한한 가운데 역사하는 내 사역과 일들은 단지 나로부터 한때 창조된 역사들을 진정  
한 신적인 존재로 양성하여 최고로 온전함 가운데 있는 존재로 내 자녀로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하는 단 한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끝 없이 수많은 창조된 그리고 타락한 영들과 그들이 나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존재인 헤  
아릴 수 없는 축복 가운데 내 영의 나라 안에서 사역을 하는 내 올바른 자녀요 내 형상이 되기  
까지 모든 영들이 필요로 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은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어  
떠한 제한도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너희 인간들이 나와 내 속성에 관해 올바른 개념을 가지게 되면, 너희는 첫째로 나에게서 어  
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하게 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최고로 온전한 존  
재로 여겨질 수 없다. 왜냐면 제한이 있는 것은 항상 온전하지 못한 것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영원히 역사를 한다.

그러나 나에 의해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남김 없이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남김 없이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존재들의 자유의지  
가 필요하다. 이 의지는 나와 내 의지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대적할 수도 있고 이렇  
게 하는데 존재들은 방해받지 않는다.

왜냐면 자유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의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의해서 나왔을 지라도 사랑과 지혜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지 죽은  
역사가 된다. 왜냐면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창조된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사랑은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비로소 생명을 생명이 된다. 만약에 존재가 강요 가운데 내 의  
지를 성취시켜야만 하면, 비록 최고로 온전하게 창조된 역사일 지라도 그가 내 의지에 묶여  
있으면 이런 온전함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이고 죽은 존재로 남게 된다. 그  
렇다면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단지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나 자신처럼 자유롭게 원  
하거나 행할 수 없는 나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  
고유의 속성을 대표하는 그리고 최고로 온전함을 대표하는 내 사랑과 지혜는 의심을 받을 것  
이다.

내 창조하는 역사에 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혼의 성장 정도가 필요하다. 그  
렇지 않고서는 이런 지식을 영접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것뿐  
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생성되는 과정에 관한 그리고 귀환의 역사를 종료시키기 위해 필  
요한 끝 없이 긴 시간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끝없는 시간과 제한이 없는  
공간에 관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단지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설명  
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나에게서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흐를지라도 언젠가는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축복이 지난 모든 고통에 비할 때 천 배 이상이나 클 것이라는 것을 너희 인간들이 아직 단지 제한된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축복에 제한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인 나 자신을 진심을 다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깊음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아직 최종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존재들이 구속을 받고 축복을 받게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의지가 전적으로 내 의지 안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영원히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될 신적인 존재가 내 자녀가 된 것이다.

아멘

시간의 개념과 그에 대한 지식.

B.D. No. 6608

1956년 7월 28일

**그** 없는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영원을 의미하는 기간 **은** 그러나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상태가 된 존재에게는 더 이상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끝없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는 것들이 그런 존재에게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어떤 영원에 영원한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지를 생각하게 해줘야만 한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로써 너희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법칙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이로써 너희가 가장 축복된 존재로서 남김 없는 축복에 속하게 되어 고통을 주는 시간 개념을 잃게 된다면, 너희가 이미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끝없이 긴 성장의 기간을 끝낼 수 있다.

너희의 존재가 너희가 이 땅의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 비로소 시작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영원한 시간 동안 부분적으로는 의식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존재해 왔고 너희가 이런 기간을 다시 끝없이 연장하거나 끝내는 일이 너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너희에게 이 기간이 끝이 없고 단지 너희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의식하는 상태가 다시 사라질 수 있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온전한 정도가 되도록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을 완료할 기회를 다시 얻기까지 너희가 다시 영원에 영원한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전에 보냈던 기간을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일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전에 보냈던 기간을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너희가 전에 보냈던 기간을 너희에게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해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어떤 강요받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이 너희에게 제공되고 너희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질지 정하는 일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너희가 증거 없이 이를 믿는다면, 너희는 또한 아직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빛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온전하기 되기 위해 추구할 것이고 너희에게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상태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런 지식에 감동을 받지 않고 그는 자신의 기간을 연장하고 영원 동안 창조물 안에 다시 묶여 다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끝없는 긴 이 땅의 과정을 가는 큰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과정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왜냐면 원래 자유롭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에게 모든 강요와 모든 묶임을 받은 상태가 고통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이 공개되어 그들에게 제시되고 혼이 더 큰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일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지식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혼의 성장에 관한 가르침을 단지 망상으로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진지한 경고이고 각 개인의 혼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원하는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단지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소유하기 위해 또한 추구해야만 한다. 존재는 추구하도록 이런 지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자극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한번 영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영원과 자신을 연관시켜야 한다.

그들은 또한 자유와 속박이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고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들이 자유의지로 그들이 이미 벗어났고 이제 이 땅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속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이 지식을 믿을 만하게 받아드리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의 기초로 만드는 일이 그들이 이 땅에서 도달하는 성숙한 정도를 정하고 이로써 그들이 죽은 후의 상태를 정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마지막 은혜의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강제하지 않으면서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온전함은 단지 완전한 의지의 자유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에게 모든 방식으로 도움이 주어진다.

아멘

시간과 공간의 개념.

B.D. No. 7924

1961년 6월 20일

**시**간 개념은 제한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묶여져 있는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해당이 된다. 반면에 온전하게 된 영적인 존재들은 어떤 제한도 알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은 개념이다. 왜냐면 이런 존재들은 온전하기 때문에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축복될 것이다. 왜냐면 이 존재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존재는 모든 것이 자신이 온전하게 되게 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

신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에도 생생하고 항상 극복한 일의 나타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라도 절대로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 않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이미 온전함 가까이에 도달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고 이를 남김 없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끝 없이 긴 시간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언젠가 존재하지 않게 됨을 그가 살고 있고 자신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을 영원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그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시간을 그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는 비록 시작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목표에 도달하여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간 일도 시작점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존재에게 더 이상 제한이 없다. 왜냐면 존재가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존재는 빛이 없는 상태를 했다. 먼저 깨달음과 지식의 부족함이 생겼다. 빛이 없는 상태는 제한된 시간 동안이었다. 왜냐면 존재의 상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거하는 장소도 달라졌고 이로써 공간적인 제한을 이해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역사에 제한이 있다.

존재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 때처럼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존재는 자신을 사슬로 묶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슬을 묶게 허용했다. 존재는 스스로 자신이 사슬에 묶여 있는 기간을 정했다. 존재는 그가 진지하게 완성을 위해 추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시간에 의존되게 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것이다. 언젠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확실하게 완성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모든 면에서 제한 가운데 있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존재는 하나님에게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에게는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항상 현재이고 그에게는 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의 일도 현재로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도 현재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시작이요 끝이고 항상 생명을 느끼게 하는 능력의 근원의 중심이었고 중심이고 중심으로 남을 것이다. 그는 그가 창조한 어떤 존재도 헤아려 볼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제한이 없는 존재였고 존재이고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 전과 이후가 없다. 그는 항상 현재이고 이 현재가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항상 단지 한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바꿈으로써 온전한 것을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만든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신의 원래의 상태를 반대로 바꾸어 제한을 만드려낸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들이 갖는다.

이제 타락한 존재가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만든 것이다. 모든 온전하지 못한 존재는 이제 이 법칙 안에 거해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제한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이다.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제한이 없다. 제한 가운데 있음은 영원한 법칙에 따라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는 온전했다.

이런 존재에게 시간과 공간이 없었고 존재는 제한이 없는 축복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가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모든 방식으로 제한을 만들어냈다. 만약에 존재가 자신을 다시 온전하게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나왔을 당시의 상태인 자신의 원래의 상태로 만들면, 비로소 이 제한이 해결될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성장에 관한 시간의 개념.

B.D. No. 8252

1962년 8월 26일

**이** 땅이 성장되는데 끝 없이 긴 시간이 요구되었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위해 시간 개념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먼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왜냐면 이 기간은 너희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 마찬가지로 긴 기간 동안에 걸쳐 타락이 일어났음을 그러나 이렇게 느린 지구의 성장 과정에 시간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음을 항상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를 만이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시간 동안에만 시간 개념을 알기 때문이다.

온전한 자에게는 더 이상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단지 지구 창조되는 과정 중 일정한 부분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들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왜냐면 나로부터 타락하는데 영원에 영원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떠나간 영적인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같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 사람들이 나와 전적으로 다시 나에게 속하게 되기 직전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스스로 이런 영원에 영원의 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모든 형체로부터 남김 없이 자유롭게 되는 너희의 높은 곳을 향한 성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직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나로부터 타락한 일이 영원의 영원 전에 일어났음을 너희가 이제 이런 큰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진실로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긴밀하게 헌신하려는 생각만 하게 되고 너희에게 최종적으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기를 그에게 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서 사랑과 겸손 안에서 너희가 한때 지은 교만과 사랑이 없는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게 헌신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은 항상 단지 제한된 선에서 머무를 것이다.

너희를 높은 곳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너희를 내 대적자로부터 빼앗기 위해 너희는 내 의지에 의해 묶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얼마나 끝 없이 긴 시간을 보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희에게 이렇게 끝 없이 긴 과정을 뒤돌아볼 수 없게 했다.

왜냐면 그렇게 했으면 너희가 자유의지 가운데 인간으로써 이 땅에 과정을 갈 수 없고 단지 두려움이 내 뜻대로 살게 너희를 이끌었을 것이고 이로써 온전함에 더 이상 이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자유의지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너희 혼이 거친 과정을 알면 너희의 책임의식이 강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비록 너희가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얼마나 오랜 동안 너희 스스로 이미 이 땅의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하게 자극을 해주는 수천 년간에 거친 이 땅의 발전과정에 인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연구결과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는 모든 창조물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의 힘으로 창조하였을 때 그들에게 정해진 대로 능력과 빛 가운데 역사하며 자유로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다시 되기 위해 높은 곳으로 향한 성장 과정을 가고 있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고 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항상 단지 사람들에게 이를 믿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를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 땅의 마지막 과정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 가려고 하면, 그가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 나와 연합이 되면, 믿음은 확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임재할 수 있으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단지 그의 끝없는 이전의 과정을 마치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모든 능력으로 나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와 연합이 되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아멘

시간과 공간의 법칙. 아직 온전 하지 못한 상태.

B.D. No. 8997

1965년 6월 17일

**너**희는 내가 귀환의 역사를 언젠가는 남김 없이 성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도 버려 두지 않고 모든 존재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 맨 처음으로 타락한 영도 스스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비록 영원한 시간 동안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할지라도 어떤 존재의 운명도 절대로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을 확신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때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존재들을 돌보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내 사랑이 보증을 한다. 나에게 영원한 시간은 너희가 이해하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30/53

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하나이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너희가 견디어 야만 할 모든 고난과 고통도 영원 과 비교하면 나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이다.

너희가 인간으로 내가 나라는 의식을 가진 상태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너희의 고난의 시간 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다. 왜냐면 묶임 가운데 있는 상태 의 존재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도 한때는 전적으로 자유로 윳고 묶임의 상태를 단지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인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인간에게도 이 법칙 이 적용이 된다. 존재가 온전한 상태 도달하기까지 이 상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함에 도달하면, 모든 제한은 사라진다. 혼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저세상으로 가지고 간다. 혼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혼돈 된 생각 가운데 있으면, 비록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영계에 거한 것이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자신을 안락하게 해주지 못하는 환경 안에서 거한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그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그들이 자신들에 게 가장 밝은 생각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 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의 생각은 천국을 향해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이 땅의 삶을 자신이 마지막 성장을 이루어야 할 지나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후에는 그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 이 상 없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가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에 그가 이 정도의 영적인 깨달 음에 도달했으면, 그에게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는 이 고난 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마치 그의 인생길에서 그가 지나 왔던, 그림자와 같이 여 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사람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법칙 아래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고난과 고통을 통 해 혼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기가와 장소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왜냐면 이 법칙 이 무효가 되면, 혼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사라진다. 왜냐면 시간과 공간 이 없는 상태는 이미 온전하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운명이고 반면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에 게는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 다.


나로부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을 견뎌야만 하는 불행하게 된 존재에게 빛의 존재 에게 축복된 것을 똑 같이 주어서는 안 된다. 타락한 영의 나라는 제한이 있는 나라이다. 그러 므로 그들은 이 제한 아래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이 이런 제한 된 상태 를 버리고 다시 제한이 없는 축복된 상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한때 지은 죄 값을 치러야만 했던,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이 시간이 는 깜짝할 사이 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단지 아직 온전 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에 속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온전하게 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그들 에게도 분명할 것이다.

창조물이 없는 공간.

B.D. No. 6634

1956년 9월 2일

 든 창조물이 존재하는 근거이고 모든 창조물이 생성되게 하고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묶임을 받은 따라서 불행한 모든 영적인 존재가 구속받기 전에는 이 땅의 창조물이 중단되지 않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보이는 창조물은 너희에게 단지 내 역사를 증명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영적인 창조물을 볼 수 없지만 이런 영적인 창조물은 또한 영적인 존재가 온전하게 되도록 섬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온전하지 못한 거주자인 동안에는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사랑이 또한 이런 영적 창조물이 생성되게 했다. 왜냐면 더 높은 온전함에 도달하게 하는 목적 외에도 이미 빛과 힘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빛과 힘을 내 뜻대로 창조하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내 사역과 역사는 끊임없이 사랑을 비춰주는 일이고 내 사역과 역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일어난다. 사랑과 지혜가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에는 가장 기적적인 창조물들이 생성되어야만 하고 존재들을 다시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런 존재들은 한때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로써 나에 의해 생성된 사랑의 역사가 존재들을 묘사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온전함을 버렸거나 또는 온전함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무한하게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이런 축복을 선물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행복한 혼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형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성숙한 정도에 해당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그들의 과제는 자신들의 성숙한 정도를 높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물은 끝없이 긴 시간 동안 존재가 보장이 된다. 왜냐면 성장하고 귀환하고 한때 자발적으로 버렸던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창조물들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들이 아직 무한히 많기 때문이다. 비록 단지 작은 성공을 이뤘을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마치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창조물이 제공되고 내 무한한 사랑이 이제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일지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본다.

나는 어떤 존재도 운명에 맡기지 않는다. 나는 한때 나를 떠난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향한 내 사랑의 갈망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했다. 가장 큰 저항도 단지 내가 증가된 추진력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 왜냐면 내가 창조물을 통해 내 창조물에게 항상 영원히 유효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존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사랑은 아주 강해 지속적으로 존재를 끌어드린다.

이 땅의 창조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창조물이 한때 타락한 존재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주 큰 사랑은 거부당할 수 있고 존재가 가장 작은 성공도 하지 못하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전적으로 저항하는 영적



인 존재를 세상적인 창조물이 나 영적인 창조물에서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가능하고 이런 존재가 전적으로 비어 있는 끝없이 넓은 공간에 거하고 전적으로 자신에 의존되어 있고 생명이나 사랑이 없는 곳에 거하지만 그러나 끝이 없는 고통이 되게 자신을 의식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창조물이 없는 상태는 혼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이다. 이런 혼은 모든 창조물을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혼이 이 땅의 존재하는 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고 자신이 무에서 생성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육체의 죽음 후에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또한 혼을 위한 사랑으로 행하는 공훈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혼을 준비시켜 혼이 전적인 놀라움과 감사로 내 사랑이 이제 눈 혼의 앞에 생성되게 한 첫 번째 창조물을 다시 관찰하게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실패한 성장이 이제 영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종류이든 세상적인 종류이든 내 창조물은 끝없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다시 내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내 사랑을 영접하고 이로써 자유의지로 나에게 귀환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의 시간과 공간 법칙.

B.D. No. 2575

1942년 12월 5일

**육**체는 소멸되고, 그와 함께 이 땅의 고난도 사라진다. 그러나 혼은 이 땅의 삶에 합당하게 저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 산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은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난은 끝이 나는 반면에 저세상의 고난은 혼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빛의 영역에서 완전히 시간을 초월하여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은 단지 온전하지 못한 단계에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상태에 있는 혼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곳에 거한다. 따라서 시간의 개념으로 혼의 성숙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혼이 아직 시간과 공간에 의존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 혼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빛의 영역에 들어 가지 못한 것이다.

세상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법칙은 사라지고, 어디에서나 거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아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한 상태이고, 이런 영의 자유가 그의 축복된 상태를 만든다. 왜냐하면 혼이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혼은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아직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다. 혼은 더 이상 신체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지만, 혼은 아직 세상적인 욕망을 통해 특정한 환경에 묶여 있고, 자신이 스스로 이런 속박을 받게 한다. 왜냐하면 혼이 자유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자유한 상태를 거의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은 항상 일정한 제한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온전함에 합당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이 제한으로부터 해방되면, 혼은 자유의 축복을 깨닫고, 절대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일은, 혼이 또한 요구하는 곳에서 혼이 원하는 대로,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혼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에게 준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런 결과로 혼은 영원한 입법자에게 가까이 다가 갔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인 분과 연결되었고, 이로써 혼은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린다. 다시 말해 혼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머물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가면, 혼에게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존재가 전혀 묶임을 받지 않고, 사랑의 법 외에는 다른 어떤 법에도 종속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의 법이 그를 짓누르지 않고, 사랑의 법을 무한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자유한 상태이고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멘

온전한 상태에서의 시간의 개념.

B.D. No. 7013

1958년 1월 9일

**온**전한 존재에게는 비록 모든 각각의 단계를 볼 수 있고 항상 또 다시 현재로 체험할 수 있을지라도 과거의 시간이 단지 눈깜짝할 사이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충만한 것들이 존재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존재가 과거에 처하면, 크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항상 새롭게 보인다.

온전하게 된 존재에게 시간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단지 자신의 창조주 아버지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형태로 자신의 감사를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아직 물질에 묶여 고통을 당하는 영적인 존재를 항상 또 다시 돕고 이런 존재가 다른 형체에 거하게 해주기 위해 항상 또 다시 가능해야만 한다. 이런 과제는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여해도 되는 온전한 존재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과거가 모든 빛의 존재에게 단지 지나치는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는 영원과 같은 기간이다.

빛의 존재가 영원 가운데 당하는 이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긴밀한 사랑으로 묶임을 받은 존재들이 자유롭게 되게 돕기 위해 함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은 끝이 없다. 타락한 존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빛의 존재들의 수는 측량할 수 없게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온전한 존재이고 모든 온전한 존재들에게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간을 통해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창조물들이 존재할 것이다.

영원한 기간을 통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구속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을 받은 존재들의 사랑이 항상 증가하고 그들의 축복된 감사함이 계속하여 구속하는 일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과거를 볼 수 있고 과거를 현재처럼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온전한 존재의 축복에 속한 것이다.

왜냐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항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이제 빛의 존재로써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자신이 체험해야만 했던 모든 각각의 형체들이 바뀌는 것이 아버지의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항상 또 다시 그에게 증명하는 고귀한 기적의 역사를 깨닫기 때문이다.

한때 존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했던 것이 이제 빛의 존재를 행복하게 하고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불행한 존재들이 그 안에 거하여 빛의 존재들이 누리는 이런 축복한 상태에 마찬가지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 빛의 존재가 스스로 이런 형체를 창조하게 자극한다.

빛의 존재가 이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빛의 존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창조하는 일을 한다. 빛의 존재가 이제 모든 창조의 작품의 목적과 성공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구속을 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으로 창조하고 역사한다.

왜냐면 빛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작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대적자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빛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한때 가졌던 축복을 안다. 온전한 존재에게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

그러나 그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의 고통을 알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빛의 존재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거친 과정들을 항상 또 다시 현재처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것이다.

그 안에서 항상 또 다시 구속을 도와주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그는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는 한때 타락한 모든 존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기 때문이다.

아멘

저세상의 거대한 공간.

B.D. No. 7419

1959년 9월 30일

**성**숙하지 못한 채로 저세상으로 간 혼들이 아무것도 없는 끝 없이 넓은 공간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너희는 혼들 스스로 어떠한 영적인 것을 전혀 볼 수 없고 세상적인 것은 전혀 없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너희가 혼들의 부족한 성장상태로 인해 혼들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전적으로 지워지고 혼돈되어 있고 혼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면 특별히 혼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면, 혼의 상태가 비어 있는 것처럼 혼에게 선명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

으로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더 이상 혼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결과를 준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서 혼의 상태는 전적으로 빈 공간 속에서 이제 쉬지 않고 항상 혼이 구하는 사람을 만나려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 다니는 상태이다.

이는 고통이 총만한 상태이고 혼 안에 특정한 갈망을 일깨워 줘야 한다. 이 갈망은 같은 생각을 가진 혼들과 이런 상태에 관해 교류하는 것이다. 이런 갈망이 자라나고, 아주 강하면, 혼은 겉으로 보기에 전적으로 자신의 혼의 상태에 알맞은 혼을 만난다. 그러나 빛의 혼이 그에게 역사해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가리고 그 혼에게 가까이 다가 간 것이다.

왜냐면 혼이 오랜 방황을 하는 가운데 고립되어 있으면, 혼은 빛의 혼이 자신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면서 제공하는 모든 자극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혼의 상태가 서서히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혼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아주 강박해져 있고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지 않으면, 혼이 자신의 생각에 묶여 있는 가운데 머물면, 그럴지라도 높은 존재에게 자신의 고통이 총만한 상태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 이런 혼이 때때로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은 어렵다.

왜냐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불씨만큼 이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원망하고 자신의 불행한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 이 때문에 이런 혼이 부드럽고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와 똑 같이 가장하고 그에게 나타난 빛의 존재의 자극을 따르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드러나게 변화 된다. 여명은 항상 밝아지고 선명해진다. 비록 혼이 들어서는 곳이 빛의 영역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혼은 이 곳에서 사물들을 볼 수 있기 시작한다. 빈 공간은 사라진다. 혼은 서로 다른 인상을 받고 이제 빛의 존재가 전해준 것에 대한 확증을 요구한다.

이런 넓은 빈 공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혼들은 특정한 시간에 혼들을 도우려는 빛의 존재와 만난다. 그러나 모두가 빛의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런 혼이 구속을 받기까지 이런 혼이 유순하게 되어 자신에게 선포 된 사랑의 복음을 영접하고 사랑의 복음대로 살기까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구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이 기도는 혼의 거부하려는 의지를 꺾게 하고 혼이 자원해 빛의 존재가 준 모든 지식과 가르침을 영접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빈 공간을 아름다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 수 있고 혼이 이곳에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들의 가장 큰 노력은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혼도 그의 불행한 상태로부터 구속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런 빛의 존재의 노력을 지원하면, 혼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사람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존재 안에 응답하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랑은 다시 사랑과 하나가 된다. 사랑하는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는다. 혼은 자신을 그분께 어떤 저항도 없이 드릴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아멘

시간과 공간의 개념.

B.D. No. 7474

1959년 12월 9일

**너**희가 시간을 상상해보기 원하면, 너희 혼이 나에게 귀환의 길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상태는 끝이 난다. 언젠가 너희가 제한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면, 너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진다.

그러면 너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같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때와 장소의 모든 것을 현재로 체험할 수 있다. 너희는 이런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만 존재는 제한을 안다. 그러나 존재가 온전하면, 즉 자신이 원래 초기에 처했던 자신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면, 제한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혼은 모든 과거의 일을 다시 현재로 체험할 수 있고 내 큰 사람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비로소 그의 깊은 곳으로 타락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혼은 아제 내 자녀이고 내 자녀로 영원히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의식한다.

왜냐면 그러면 더 이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상태라 할지라도 혼이 원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왜냐면 과거의 상태가 혼에게 현재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제한이 항상 부족함의 상징인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속한 개념이다.

언젠가 너희에게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 너희는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어느 정도로 너희에게 제한이 사라지는지는 너희의 축복의 정도와 같다. 왜냐면 빛의 나라는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곳에 거할 것이다. 이로써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혼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면 혼은 모든 것을 현재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찬양하고 칭송하며 내가 혼을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 것으로 인해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혼은 내 곁에서 끝이 없는 축복을 누릴 것이고 항상 자신에게 이런 영광을 영원히 제공하는 내 사랑과 은혜를 의식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내 구속사역을 체험하고 비로소 이런 구속사역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측량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이제 자신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한 큰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이 한때 나로부터 떨어졌던 심연의 깊은 곳의 간격을 깨닫는다. 혼은 깊은 곳까지 자신을 뒤따르고 이로부터 자신을 끌어 올린 큰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다.

혼은 귀환의 길 가운데 절대로 지치지 않는 인내와 사랑을 깨닫는다. 왜냐면 혼은 자신이 한 때 가졌던 저항을 내 사랑을 거부한 것을 보기 때문이다. 혼은 모든 한때 타락한 존재들을 향한 내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거룩한 놀라움에 빠질 것이다. 혼은 자신을 창조하고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한 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혼은 항상 이런 긍휼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혼은 이를 통해 항상 자신을 이렇게 축복되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행해진 일에 대한 항상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혼은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다른 혼들에게 같은 축복을 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혼은 아직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혼들의 큰 위험을 보고 이들을 돕는 일이 항상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내 자녀에게 제공하는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제공해 줄 영광을 앞두고 모든 구속 받지 못한 혼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아멘

시간과 공간의 개념. 지극한 행복

B.D. No. 8779

1964년 3월 14일

**너**희는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내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넘치게 축복되게 할 분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깊은 사랑으로 너희와 하나가 되는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했다.

왜냐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고 그는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 데서 자신의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긴밀함으로 나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 자신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사랑이 되면, 너희는 내 사랑의 응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초기에 나에게 대해 느꼈던 것처럼 나에게 다시 사랑을 받치게 될 때까지는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러야만 한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는 시간이 없다. 시간 개념은 단지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 인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땅의 삶은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보냈던 끝 없이 긴 시간과 비교해 볼 때 단지 눈깜짝할 사이이다.

너희가 단지 희미한 깨달음을 가지고 비록 아주 적은 빛과 사랑의 정도를 가졌을지라도 영의 나라의 들어가게 되면, 너희에게 지나간 시간은 너희가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보낸 과정이 짧은 기간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기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저세상에서 나로부터 빛이 비추어 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너희에게는 모든 공간 개념이 사라진다. 그러면 너희는 너의 생각이 가는 곳에서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없다. 단지 성장한 정도가 너희가 거하는 영역을 정한다. 너희는 자원해 다른 영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 왜냐면 너희들 스스로 현재 영역이 너희의 빛과 사랑의 정도의 적당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은 너희 안에서 밝게 불타오르고 혼은 항상 간절하게 나를 갈망할 것이다. 나는 혼에게 그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나는 내 사랑을 항상 더욱 강하게 부어 주고 축복을 계속하여 높을 것이다. 너희 이 땅의 인간들이 이런 축복된 상태를 알면, 진실로 너희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단지 이에 관해 설명해줄 수 밖에 없고 이에 관한 증거를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축복은 측량할 수 없이 커서 단지 내가 피조물들에게 준비한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합당한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추구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창조물의 기적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의 눈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록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지라도 창조물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랑과 지혜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창조주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창조주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길을 택한 길을 원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세계가 자기의 의해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을 준비해주기 위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요구한다. 나는 내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채워 주기 위해 어떤 사람도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본적이 없고 어떤 사람도 들은 적이 없는 행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단지 너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아주 자주 인간의 삶에 간섭하여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는 이런 축복된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단지 내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언젠가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 사랑을 거절했는지 왜 거절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는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가 영계로부터 돌보게 허용 받은 사람들이 빨리 깨달음에 도달하게 도우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스스로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된 가운데 그는 그의 사랑 안에서 아직 나로부터 직접 내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다른 모든 사람도 이런 축복에 도달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로부터 계속하여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면 자신이 구속을 받았고 스스로 빛 가운데 서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즉 영을 떠나는 일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두운 세계 가운데도 반짝 빛나는 빛을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혼들은 구속역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구속을 받은 혼들은 이제 스스로 이미 빛을 비추어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어두움을 뚫을 수가 있다. 한 혼이라도 구원에 이룬다면 영의 나라에서는 아주 큰 환호를 불러 일으키고 나를 향한 사랑은 증가한다. 내 자녀들은 쉬지 않고 나를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 모두의 느낌은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깊은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축복이고 측량할 수 없게 강해 질 수 있다.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항상 끊임없이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는 모든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들의 목표요 갈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절대로 행함이 없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는

만약에 단지 너희 자신의 사랑의 정도가 지속적인 비추임을 허용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이 사랑 가운데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고 축복되게 남을 것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B.D. No. 8399

1963년 2월 1일

 든 것들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내 사랑의 힘이 근원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외에는 어떤 다른 힘의 원천이 없다. 영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 작품이다. 왜냐면 영원으로부터 영적인 창조물들이 존재하고 영원으로부터 내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능력은 항상 능력을 나타내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런 창조물들은 너희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영원으로부터 일을 해왔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영원히 흐르는 능력의 흐름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너희 사람들은 아주 약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 내가 일하는 방식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나와 같은 존재를 창조 하였을 때 비로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나에게 되었다는 한가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런 창조가 끝이 없는 영원에 영원 전에 일어나서 너희는 항상 단지 “태초에” 라는 개념을 비유를 통해 다시 말해 너희들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알맞게 이해해야 한다. 나에게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창조물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존재들을 창조하는 과정은 묘사할 수 없고 단지 축복된 일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작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혼이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에 도달했으면, 너희는 스스로 나에게 어떤 제한이 없음을 무한 가운데 내가 창조하고 역사하는 일을 절대로 공간적인 또는 시간적인 제한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한 가지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너희가 바로 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일하는 측량할 수 없는 총만한 내 능력을 증거하는 영적인 존재로써 너희에게 한번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라도 이 시작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단지 자연과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의 창조 작품들이 단지 우주 전체 창조 세계의 아주 작은 일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나에게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이의 결과로서 이런 창조 된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 들어가는 끝 없이 긴 시간을 너희는 상상할 수 없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바라보는데 절대로 제한 된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에게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능력은 항상 새로운 창조물들을 생성시킬 것이다. 내 사랑과 지혜는 어떤 것도 의미와 목적이 없이 창조 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모든 것이 나에게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 원래 성품이 자신을 선물 해주기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자신을 부여줄 수 있는 그릇인 존재를 필요로 하고 존재가 사랑을 다시 나에게 돌려줄 때 그 가운데 내 축복이 있다.

사랑은 항상 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교류는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된 과정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에 관해 아주 작은 깨달음의 빛을 주면, 이것은 이미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너희가 나와 마지막 연합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내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한 작은 증거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만약에 모든 이 땅의 형체가 너희들로부터 사라지게 되면, 너희가 빛의 나라의 거주자로서 내 영원한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 비로소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단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그러나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알 것이다.

그렇지라도 나는 내 사랑 안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물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영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온전한 정도에 도달하여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추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게 한다.

너희는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고 모든 영원에까지 축복되게 남을 것이다.

아멘

불사. 영원. 자살.

B.D. No. 0974a

1939년 6월 21일

0 | 땅의 자녀는 불멸의 문제와 영원의 개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한편으로 세상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영적인 설명을 그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로소 존재에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신성을 절대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다음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점을 염두해야만 한다.

사람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로서 자신이 존재하는 일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고 믿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고 믿고, 그러므로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42/53

또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불멸에 대한, 무한한 기간에 대한, 영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절대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일은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이 언젠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 생각이 그들에게 훨씬 더 편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시간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후에 계속 사다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깨닫고, 결코 자신의 불멸을 믿기를 원하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일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신이 존재하기를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부담을 주고, 그 안에 책임감을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게 되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단)

불사. 영원. 자살.

B.D. No. 0974b

1939년 6월 22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계속되는 삶을 거부할 것이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써 모든 것의 끝을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그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면, 그들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지 겉형체이고, 생명 자체가 아니다. 그들은 이 생명 자체로 계속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은 진정한 의미의 말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된다.

생명을 끝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자신으로부터 존재를 창조했고, 근원적인 요소가 신적인 모든 것은 결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자신의 지혜로 존재가 온전함에 도달하는 데 한계가 없게 했고, 또한 영원 가운데 지속적으로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존재는 계속해서 일하고, 주고, 또한 고갈되거나, 영원한 신성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이, 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불멸을 남김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적게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불멸하는 것이 없고, 혼의 불멸을 사람에게 증명해줄 수 없고, 그가 이를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은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을 이 땅의 어떤 것과도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런 시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것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믿음만이 남게 된다. 인간은 자신에게 증명해줄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영원에까지 존재가 불멸하는 것을 다른 모든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아멘

영원의 개념을 이 땅의 창조물에 적용한다면, 이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눈에 "영원한"이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 창조 작품이 무한히 오랜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소멸이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것으로, 항상 지속되는 것으로, 따라서 불멸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이어야만 한다. 왜냐면 성숙하기 위한 특정한 시간이 주어진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보이고,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결국에는 창조물을 떠나야만 하고, 이로써 창조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볼 수 있는 창조물의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므로 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에만 적용이 된다.

영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의 나라는 불멸하다. 왜냐면 끝없는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볼 수 있는 것은 영원의 세계에서는 없어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보이는 물질은 영의 나라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조차도 자신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순수한 현실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그들은 허상인 모든 물질에 속는 거짓 관점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아직 갈망했던 물질이 사람의 눈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러면 비로소 그런 혼이 영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영적인 삶이 영원히 지속되고, 행복하게 되거나 또는 영의 나라에 영원히 머문다는 생각이 고통이 될지의 여부가 영적인 성숙의 상태에 달려 있음이 존재에게 분명해진다. 왜냐면 존재가 단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하는 과정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뤄졌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창조물들이 형성이 되어 이미 성숙한 영적인 존재가 거할 수 있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게 돕는 데 끝 없이 긴 기간이 필요했다.

영적인 존재가 의무단계에서 섬김을 통해 이제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고 다시 물질적인 형체가 살아있게 하고 그러나 더 이상 의무단계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닌 자유의지를 다시 돌려받는 그러나 같은 성장하기 위한 과제인 섬기는 일을 받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끝 없이 긴 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섬기는 일이 더 이상 강요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자유의지로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영적인 존재에게 보장 된다. 이런 인간의, 즉

인간의 혼의, 이 전의 오랜 성장 과정은 실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은 언젠가 끝이 난다.

그러나 인간 앞에 영원이 있다. 왜냐면 인간의 혼은 불멸하기 때문이다. 혼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혼이 이제 이 땅의 인간으로써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반면에 영원 가운데 상태는 온전하게 되어 한다. 왜냐면 이것이 바로 영의 나라에서 자기와 같이 온전한 존재와 함께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되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써 너희는 하나님 자신이 목표로 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단지 온전한 존재와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한가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런 온전함에 도달하려고 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 전의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에 비하면, 이 땅의 기간은 진실로 눈 깜짝할 사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사랑에서 우러나서 자유의지로 섬기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아주 큰 사랑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오랜 고통을 더 이상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짧은 이 땅의 과정이 영원 가운데 혼의 상태를 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연적인 결과로써 다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는 이를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자유의지로 마지막 완성에 도달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사람에게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혼이 언젠가 그의 모든 이전의 성장 과정을 포함한 이 땅의 길을 돌아보게 되면, 혼은 밝은 깨달음 가운데 모든 연관 관계를 이해할 것이고 그러면 혼은 혼의 완성을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혼 자신이 이런 성장 과정의 기간을 정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비록 혼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이 땅의 과정을 연장시켰을지라도 혼은 축복될 것이다. 그러나 혼이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다. 사랑이 자신 안에서 밝은 화염으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혼이 극복한 자가 되면, 혼은 온전한 상태에 도달한다. 왜냐면 사랑이 혼에게 섬기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고통은 극복이 된다. 그러나 혼은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마지막 목표가 진실로 모든 과거의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축복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작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의 권세에 의해 실행 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갈망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창조하고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전에 일어났던 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은 끝 없이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빛을 입은 영의 무리로 말할 수 없이 복된 상태 가운데 영원에 영원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원래의 영들에게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까지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넘치고 하나님께 복종하던 데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까지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흘렀다.

다시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흘러 그들이 최종적으로 나를 떠났다. 영의 나라에서 일어나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최고로 온전하게 창조된 자가 그의 기본 성품을 바꾸어서 끔찍한 존재가 되었고 이로서 전적으로 복되지 못한 역시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흑암과 고통의 세계가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다시 창조의 이유가 되었다.

이 이유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창조의 과정에도 끝 없이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왜냐면 모든 물질적인 창조는 한때 그가 깊이 타락했던 것처럼 다시 위로 성장해야만 하는 영적 존재들이 돌아오는 길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단계도 그냥 건너 뛸 수 없어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피조물 속에 여러 가지 단계의 성장 과정 중에 있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숨어 있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굳은 입자로 단단하게 되고 형체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이 되어 볼 수 있는 형체가 되는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자신으로부터 자립적인 존재를 창조하는데 걸린 긴 시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므로 영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돌아 가는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목표에 다시 이르는 데도 영원에 영원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영의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타락의 과정을 타락한 영적 존재인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이 땅의 삶의 의미 깨닫고 그들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길 구하고 그들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이므로 이 원래 상태에 대해 알게 해야 한다. 왜냐면 이에 관한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고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 한때에 스스로 빛의 깨달음을 버리고 가장 깊은 흑암을 선택한 타락한 영적인 존재와는 다르게 이에 관한 지식을 얻은 존재는 빛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흑암을 벗어나기 원하는 존재에게 빛을 밝힌다. 이 빛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해답을 준다. 이 해답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고 간절히 원하는 존재에게 이 빛을 선물한다.

사람들의 자신의 존재가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한 분이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최고로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모든 것은 최고로 깊은 사랑과 최고로 높은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에 기원한 것이다. 최고의 행복을 체

험하기 위해 이분에게 자신을 헌신해도 되고 해야 한다. 이 분의 근원적인 요소는 항상 영원히 자신을 주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분은 수많은 존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

너희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너희가 너희 안에서 자유의지로 반대쪽으로 간 것이고 언젠가는 확실히 다시 회복될 것이고 사람으로서 물질적 창조물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로서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의지를 가지면, 너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이 의지를 자극한다.

그러나 자신이 이를 자유롭게 영접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대해 계시하고 사람들이 자신 성품을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런 깨달음이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영원의 개념. 온전함.

B.D. No. 6019

1954년 8월 10일

**내** 창조주의 의지가 나를 떠나 모든 영적인 존재를 되찾기 위해 활동했던 무한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므로 무한히 많은 창조물들이 생성되었고 이런 창조물들의 귀환을 가능하게 해야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빛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마치기까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의해 생성되었고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난 존재들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너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비록 모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것처럼 끝나는 시점이 다가올지라도 너희에게 잘못 된 용어가 될 필요가 없이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가장 긴 기간조차도 한 순간과 같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무한히 끝 없이 긴 기간이다. 너희는 이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단지 시간 제한이 있는 반면에 온전한 상태는 시간 제한이 없고 모든 온전한 존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 나에게 완전히 돌아올지는 나에게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내 피조물들에게는 이 기간이 가장 크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하게 된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게 될지를 너희 자신이 줄이거나 또는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너희는 아직 온전함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너희를 더욱 더 겁나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과거의 끝없는 시간과 끝없는 미래의 시간이 너희에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끝없는 미래의 시점이 심지어 너희에게 굳은 확신이 되어 이로써 너희는 시대의 종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끝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영원히 계속하여 존재하고 유일하게 실제적인 것이고 단지 나에게 돌아오는 수단이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은 사라진다는 너희의 확신은 올바른 확신이다. 인간은 너무 자주 자신이 시간이 흘러 사라지는 것처럼 지속되지 않고 실체가 아니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 안의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에게 한계가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되기 위해 영원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가 다시 나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완전한 자유 가운데 끝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 영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히 영원으로부터 스스로 존재한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저주.

B.D. No. 6550

1956년 5월 19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고 그의 피조물인 너희를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도와주려는 그의 끊임 없는 노력을 알지 못한다. 그는 어떤 존재도 깊은 곳에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때 타락한 모든 존재들은 그의 근처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는 불행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의 사랑은 이런 불행한 존재들이 한때 자원하여 돌아섰던 자신에게 다시 향하도록 유혹하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일이 강요가 없이 일어난다. 이런 존재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역사할 수 없고 단지 사랑을 통해 존재가 하나님께 귀환할 수 있다. 그러나 귀환하는 일은 확실하게 일어난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에 의해 생성되어 자신에게 속한 존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단지 타락한 존재가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가 자신을 열고 사랑의 힘에 의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정함을 받을 때까지 사랑의 빛이 항상 또 다시 존재에게 임한다. 사람이 자신이 더 높은 권세에 의해 인도 받고 지도 받는 것을 의식하고 이제 높은 권세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즈막한 음성인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의 저항이 꺾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를 이끌고 하나님의 긍휼은 아직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가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깊은 곳으로 타락한 존재를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옥에서도 구원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의 죄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왜냐면 긍휼이 타락한 자의 연약함을 보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존재가 자신을 열고 자신 안에 빛이 역사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애를 받는다. 그러면 파문을 벗어나게 된다. 왜냐면 사랑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영원한 저주는 존재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엄하고 사랑 없는 판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행한 존재가 자유의지로 행한 그의 잘못을 통해 얻은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행한 존재를 그런 상태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고 불행한 존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고 자신의 사랑을 불행한 존재에게 비취주기를 원한다. 그의 긍휼은 죄짐의 크기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떤 존재도 축복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불행한 상태는 또한 영원에 영원한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다. 왜냐면 존재가 스스로 그런 불행한 상태를 끝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에게 모든 도움이 주어

질 것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비록 자신의 피조물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저항을 지속할지라도 절대로 느슨해지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피조물들의 불행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피조물들을 축복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일이 그의 공의와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혼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방식으로 혼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완전한 귀환이 보장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사랑이 역사하도록 허용되는 곳에서 모든 것에 대항해 승리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모든 존재가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언젠가 깊은 곳이 모든 존재를 풀어줘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언젠가 자유의지로 다시 하나님께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영원히 영원이 걸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대적자를 이길 것이다.

아멘

영원한 저주.

B.D. No. 4602

1949년 3월 30일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고, 그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의 인내심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피조물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 어떠한 개념을 시간에 적용시켜 영원을 이해한다면, 영원한 저주라고 말하는 일은 오류이다. 왜냐면 그런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그의 대적자가 그로부터 얻어간 존재를 최종적으로 그의 대적자에게 양도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는 어떤 면에서 승자가 될 것이고 힘과 권세가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온전함과 그의 힘과 권세와 지혜에 필적할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 있고, 존재 자신이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으로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분리된 간격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다. 왜냐면 존재가 축복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 하고, 존재에게 축복된 상태를 마련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 붙잡힘을 받으려는 의지가 존재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저주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모순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제한을 가하는 일이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온전함이 의문시된다. 최고로 온전한 존재는 인간적인 작은 약점이 없다. 그러나 영원한 분노는 질이 낮은 인간의 성품이다. 또한 모든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을 받는 상태를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신적인 것의 특징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하고 돕고 용서하고 행복하게 하고 절대로 어떤 존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하나님의 원칙과 사랑이 부족하고, 그의 목표는 항상 존재를 자신에게 영원히 끌어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억압하기 위해 하나님을 긍휼이

없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들이 영원의 개념으로 혼란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의 대적자 자신이 긍휼이 없고, 그러므로 생각할 것이 없이 혼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는 영원한 저주를 가르치는 그의 가르침을 자원하여 따르는 추종자들을 찾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오류를 확연히 드러나게 한다. 이로써 하나님을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경멸하게 한다.

아멘

영원한 저주는 없다.

B.D. No. 6155

1955년 1월 5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없다. 영원한 저주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런 일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를 돌보고 존재가 아직 깊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존재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 존재를 영원히 자신의 대적자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존재 자신의 뜻이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에 의한 정죄라고 말할 수 없다.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런 일은 존재 자신의 잘못이고 존재 자신의 의지이고 존재가 언제든지 이런 간격을 줄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존재 자신이 단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존재가 스스로 불행한 상태를 만들고 이런 불행한 상태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존재에게 빛과 힘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이다. 왜냐면 존재가 빛과 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없이 죽은 존재가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게 위해 항상 노력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온전함에 기초한 그의 영원한 질서인 법을 지키는 가운데 존재에게 힘과 빛을 발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존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이 무한하게 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 영원을 단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에게 항상 자신의 불행한 상태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끝내는 일이 절대로 그 자신에게 맡겨져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항상 구원받을 가능성들이 제공되고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는 일은 항상 그의 자유의지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용서하지 못하지 않고 항상 돕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축복되게 해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고 존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한때 생명으로 부른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피조물들을 절대로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빛과 힘의 근원에 자신을 담은 존재에게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고 힘으로 충만한 생명을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유의지는 모든 신적인 존재의 특징이고 자유의지를 없애는 일

은 존재를 신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영원히 온전하지 못하게 놔두는 일이다. 그러므로 불행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영원히 불행한 상태로 놔두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갖게 놔두셨다. 이로써 존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갈망할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아주 강해 자신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

B.D. No. 8947

1965년 3월 2일

**세**계가 생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들의 숫자는 너무 커서 너희가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과 지혜와 권능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모든 타락한 존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타락한 모든 존재들의 원래 소유했던, 초기의 상태로 다시 돌아 가게 하기 위한 단지 이 하나 목표를 항상 눈앞에 두고 있다.

모든 것들이 최고로 온전한 상태로 나에 의해 창조되어 나왔다는 것과 내가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들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임을 너희에게 항상 말했다. 이런 귀환의 역사는 모든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세계에 끝 없이 수 많은 형체가 된 내 생각이 담겨 있다. 이 모두는 법칙과 같은 질서에 따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정해진 바를 따라 행한다. 이로써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성장한 존재는 이런 모든 세계의 창조주요 조성하는 자를 추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존재 스스로 귀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창조물이 아직 창조되는 동안에는 귀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은 동안에는 마지막으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완주할 때까지는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내 손에 의해 창조된 존재에게는 끝이 없다. 단지 그들의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만 한다. 왜냐면 어떤 존재도 내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 존재들의 나에게 대항하는 저항이 종종 너무 커서 그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온전함을 이르는 것을 보장하는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영원의 시간이 흘러야만 한다. 이는 내 대적자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 종류의 창조물 안으로 묶임을 받을 때 비로소 이들에 대한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면 이 존재들은 거절할 수 없이 위를 향해 성장한다. 비록 의무의 법칙 아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은 대적자가 다시 권세를 가지게 되는 인간의 상태에도달할 때까지 이 영적인 존재의 성장 과정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강박하게 된 영적인 입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 자신이 포로가 되는 것을 막는 동안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족쇄로부터 풀어주게 위해 항상 내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 이로써 내가 내 권세를 그에게 사용하면, 그는 내 권세 아래 있지만 그는 내 상극이고 상극으로 남는다.

그러나 언젠가 나를 또는 대적자를 결정해야 하는 피조물을 생각하여 그는 그가 스스로 나에게 복종할 때까지 계속 내 상극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 귀환의 역사는 남김 없이 나에게 성공을 주게 되고 단지 영적인 창조물들만 남게 된다. 모든 존재가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고 더 이상 쇠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의 과정을 적은 말수로 설명한 것으로 이에 걸리는 시간은 너희에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시간이다. 너희는 항상 내 귀환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나를 섬기는 새로운 창조들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염두해둬야만 한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내 세계는 끝이 없고 내 사랑은 끝 없이 수많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들은 그러나 이 생명을 거절했고 이제 죽음의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다시 생명의 상태로 돼야만 한다.

이런 창조물의 세계에 담겨 있는 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 영적인 존재들로서 이들은 생명을 다시 얻어야만 한다. 이 일은 인간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내 대적자가 또 다시 그의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때 추종자들이 자유의지로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삶은 책임이 크다.

왜냐면 인간은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 없이 깊이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언젠가는 가장 독한 영적인 존재들도 나와 내 사랑에 복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내 대적자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 사랑 안에서 축복될 것이다.

아멘